



EBS SCAN

- 현대시 특강편 -



목 차

1. 「추일서정」 _ 김광균 ————— 02p
2.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_ 김수영 ————— 03p
3. 「초혼」 _ 김소월 ————— 05p
4. 「이별가」 _ 박목월 ————— 06p
5. 「노정기」 _ 이육사 ————— 07p
6. 「질투는 나의 힘」 _ 기형도 ————— 08p
7.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_ 이용악 ————— 09p
8. 「흑백 사진 - 7월」 _ 정일근 ————— 10p
9. 「성탄제」 _ 오장환 ————— 11p
10. 「새 1」 _ 박남수 ————— 12p
11. 「장수산 1」 _ 정지용 ————— 13p
12. 「고고」 _ 김종길 ————— 14p
13. 「거문고」 _ 김영랑 ————— 15p
14. 「굴동리 일박」 _ 곽재구 ————— 16p
15.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_ 백석 ————— 18p
16. 「나비와 철조망」 _ 박봉우 ————— 20p
17. 「화채개현」 _ 조지훈 ————— 21p
18. 「누에」 _ 최승호 ————— 22p
19. 「낙화」 _ 이형기 ————— 23p
20. 「과목」 _ 박성룡 ————— 24p
21. 「산」 _ 김광섭 ————— 25p
22. 「가을 떡갈나무 숲」 _ 이준관 ————— 27p
23.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_ 신경림 ————— 28p
24.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_ 고재중 ————— 29p
25. 「봄비」 _ 이수복 ————— 30p
26. 「청산행」 _ 이기철 ————— 31p
27. 「찢레」 _ 문정희 ————— 32p
28. 「낙화, 첫사랑」 _ 김선우 ————— 33p
29.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_ 김광규 ————— 34p
30. 「설일」 _ 김남조 ————— 35p
31. 「상한 영혼을 위하여」 _ 고정희 ————— 36p
32. 「초토의 시8 - 적군 묘지 앞에서」 _ 구상 ————— 37p
33. 「꽃을 위한 서시」 _ 김춘수 ————— 38p
34. 「등산」 _ 오세영 ————— 39p
35. 「들길에 서서」 _ 신석정 ————— 40p
36. 「등꽃 아래서」 _ 송수권 ————— 41p

추 가 자 료 안 내

작품별 자세한 해설과 관련 기출문제 등의 추가 자료는

<더엔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업로드 중입니다. (5/5 기준, 22번까지 업로드)



더엔교육연구소

새로운 교육의 시작

THE NEW, THE NEXT.

THE-N.교육연구소

「추일서정」 _ 김광균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고 그로부터 느껴지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 시이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감정의 직접적 제시 없이 근대의 도시 문명과 관련된 소재들을 통해 독특한 비유를 구사함으로써 화자의 눈에 비친 낯설고 황량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행동과 함께 그가 느끼는 애수와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 1~3행: 쓸쓸한 낙엽의 모습
- 4~7행: 가을 햇살 속 길과 들판의 모습
- 8~11행: 나무, 공장, 구름의 쓸쓸한 풍경
- 12~16행: 황량한 풍경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

✓ 주제 :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

- ① ‘폴-란드 망명정부’, ‘도룬 시’ 등 이국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를 활용하여 소재로부터 연상된 내용(전쟁으로 인한 폐허에 관해 연상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 ② ‘포플라 나무’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모습을 동물의 ‘근골’과 연관 짓고, ‘구름’을 ‘셀로판지’라는 재료와 연관짓는 등 자연물을 이질적인 소재와 연관 짓는 방법으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와 같이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또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하는 공감각적 심상과, ‘홀로’를 호올로’라고 표현하는 시적 허용을 통해 풀밭을 공연히 발로 차거나 허공에 돌팔매를 띄우는 화자의 행위에 담긴 정서적 의미(쓸쓸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적막한 가을 풍경을 그려 내는 데에 동원한 소재들을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라는 시행은 근대 문명과 관련된 ‘공장’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그 지붕이 마치 야수처럼 ‘흰 이빨을 드러내인’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이는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는 외형적 유사성이 있는 ‘낙엽’과 ‘지폐’를 ‘A는 B(이다.)’의 형식을 사용해 연결한 은유로, 발행 주체가 ‘망명정부’임을 고려하면 대상의 쓸모없음을 함의하는 표현인 것 같군.
- ⑥ ‘구겨진 넥타이처럼’은 조사 ‘처럼’을 사영하여 보조 관념인 ‘구겨진 넥타이’와 원관념을 연결한 직유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표현인 것 같군.
- ⑦ ‘일광의 폭포’는 원관념 ‘일광’을 보조 관념 ‘폭포’에 빗댄 ‘A의 B’ 형식의 은유로, 가을날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군.
- ⑧ ‘풍경의 적막’은 가을날의 ‘풍경’을 ‘장막’의 모습에 빗댄 ‘A의 B’ 형식의 은유로, 화자가 바라본 공간의 풍경을 마치 평면에 투사되거나 그려진 것인 듯이 형상화한 표현인 것 같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_ 김수영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
 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야경꾼: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힘 있는 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할 용기는 내지 못하면서 힘없는 이들을 향해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화자가 자신의 옹졸함을 성찰하는 시이다. 이 시에서 '고궁'이 권력을 상징한다면 '왕궁의 음탕'은 그 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경험과 일화를 열거하고 자조적 물음을 반복함으로써 치열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1, 2연: 심각한 사회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
- 3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몸에 밴 '나'의 옹졸함
- 4, 5연: 절정에서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
- 6연: 옹졸하게 반항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 7연: '나'의 옹졸함에 대한 자조와 반성

✓ 주제 : 부당한 사회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속물근성에 대한 반성

- 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에서 '나'는 뒤에 열거되는 여러 가지 행위의 주체이자, 그 행위들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조그마한 일에만'에서 배타와 한정적 의미를 드러내는 보조사 '만'의 사용은 정작 크고 심각한 일들에는 분개할 줄도 모르는 '나'가 사소한 일들에 한정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 ② <보기> 이 작품 창작 당시(1965년)의 역사적 상황
 -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함. (민족 구성원 저마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 독재를 끝내자는 4·19 혁명이 온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함.
 - 군사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세력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빌미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억압함.
 - 한·일 협정 체결이나 월남 파병 같은 중요 사안들도에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층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강행됨.
 - 정의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하고자 했던 소수를 제외한 시민 대부분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젖어 사회적 이슈에는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음.
- ③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붙잡혀 간 소설가'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게 된 이에 해당할 것 같아. (화자는 그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비겁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 ④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서 '정보원'이 했던 말은 화자에게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옹졸한 나의 전통'을 자각하게 하는 심리적 상처 중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
- ⑤ 화자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소시민적 삶의 태도)을 두고 '절정 위'(=불의와 대결하며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삶)가 아니라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표현한 것 같아.
- ⑥ 화자는 '바람아 먼지야 풀아'라고 호명한 대상에게 '나는 얼마큼 적으냐'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소시민적 삶(사회적 이슈에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일들에만 분개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 같아.
- ⑦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라는 시구를 통해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은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차별적 인식이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⑧ '50원짜리 갈비'라는 시구의 내용을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당시의 물가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초혼」 _ 김소월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앓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招魂)」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례의 한 절차인 ‘고복 의식(梟復儀式)’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이다. 제목인 ‘초혼(招魂)’은 ‘고복 의식’을 민간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직후에 북쪽을 향하여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불러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는 의식이다. 이 시의 1, 2, 5연에서도 죽은 사람을 부르는 고복 의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화자는 죽은 임을 애타게 부르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움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悔恨)으로 인해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해 질 무렵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서글픈 분위기를 고조하며, ‘떨어져 나가 앓은 산’, ‘하늘과 땅 사이’라는 죽은 임과의 거리감과 단절감은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화자는 ‘선 채’로 ‘돌’이 되는 것을 불사할 정도의 굳은 각오로 끝까지 임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함으로써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애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1연: 임의 부재에 대한 확인과 절규
- 2연: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
- 3연: 임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 4연: 이승과 저승 간의 절망적 거리감
- 5연: 죽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주제 :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 ① 영단적 표현이 반복되며 사별한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 ② 동일한 시어나 시구(‘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등)를 반복하며 죽은 그 사람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1연의 경우,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시어의 반복 등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점층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 ④ ‘산 위’는 화자가 존재하는 이승의 높은 장소로, ‘하늘’로 상징되는 저승에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곳에서 망자의 이름을 부르며 저승에 있는 화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그리움과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모두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인연을 이어가 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지만,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지인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⑥ ‘부르다가 내가 죽을’,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에는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처절한 슬픔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⑦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에는 모두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군.

「이별가」 _ 박목월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뒤편 강기슭에서
 니 뒤편강기슭,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뒤편강기슭 뒤편강기슭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강기슭 뒤편강기슭 뒤편강기슭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뒤편강기슭,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이승의 세계에 있는 화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공간인 강을 중심으로, 강기슭에서 ‘뒤편강기슭’라는 말을 반복하며 저승의 세계에 있는 지인과 소통을 시도한다. 하지만 화자와 죽은 지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불리고 날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화자는 인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화자는 ‘하직을 말자’라는 말을 통해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한다. 바람에 불려 죽은 지인의 목소리가 화자에게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화자는 그의 목소리에 ‘오냐. 오냐. 오냐.’라고 답하며 삶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인연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생사를 초월하여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그들의 인연을 이어 가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 1, 2연: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 3연: 점점 사라져 가는 인연을 확인함.
- 4연: 생사를 초월하여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
- 5, 6연: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인연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함.
- 7연: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
- 8, 9연: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초월한 인연

✓ 주제 : 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

- ① 일부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동일한 시어나 시구(‘뒤편강기슭’, ‘저편 강기슭에서’, ‘이승 아니문 저승’,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오냐’)를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강기슭’은 이승에 있는 화자가 건너갈 수 없는 저편, 즉 저승에 위치한 곳으로, 잘 들리지는 않지만 망자가 이승에 있는 화자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강기슭’은 저승에 있는 망자가 이승에 있는 화자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 ④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그리움과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모두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지만,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지인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⑤ 화자가 ‘뒤편강기슭’이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행위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절된 세계 사이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⑥ ‘바람에 불려서’와 ‘바람에 날려서’는 이승에 있는 화자와 저승에 있는 지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 ⑦ ‘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에는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 ⑧ ‘이승 아니문 저승에서라도’에는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정기」 _ 이육사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피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
 전설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쳐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나 항구의 노정(路程)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포범: 베로 만든 돛.
 *짱크: 중국 연해나 하천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
 *시궁치: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썩어서 질척질척하게 된 도랑의 근처.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화자가 자신의 삶의 역정을 노래한 시로, 화자의 비극적인 자기 인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쫓기는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이상적 세계를 꿈꾸지만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반추하고 있다.

- 1연: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온 삶
- 2연: 젊은 날 경험했던 시련과 불안
- 3연: 희망 없이 살아온 치열한 삶
- 4연: 고난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단한 삶
- 5연: 고단한 삶을 회고하며 느끼는 비극적 자기 인식

✓ 주제 : 지나온 삶의 고통과 비애

- ①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고’에는 ‘암초’와 같은 자연물과 ‘흐릿한 밤’, ‘태풍’과 같은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고단했던 삶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화자가 ‘시궁치’로 비유되어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화자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노정’이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경험해야만 했던 불안과 고통, 절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노정기’라는 제목은, 화자가 살아온 고단한 삶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 ④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단한 삶이 화자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 이끌려 온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깨어진 뱃조각’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부정적 자기 인식(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고단한 삶을 살아온 화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⑥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에는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오른 것처럼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질투는 나의 힘」 _ 기형도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시이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감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젊은 날에 대한 탄식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 1, 2행: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미래의 '나'
- 3~6행: 방향과 고뇌로 접철된 젊은 날에 대한 회상
- 7~11행: 질투뿐이었던 젊은 날의 모습
- 12~14행: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

✓ 주제 :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 성찰

- ① '그때 그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에서 상징적 시어('공장' - 화자의 생각거리나 고민거리를 생성하는 곳)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에서 추상적 대상('청춘')을 구체화('세워 두고')하여 화자의 반복적 행위('저녁 거리마다')를 통해 알 수 있음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지는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라는 시행의 의미를 고려하면 화자는 자신의 청춘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 ③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에서 화자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청춘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화자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에는, 화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결국 타인에 대한 질투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과정이었음을 아프게 자각하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에는 화자가 추구했던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행동이 아니라, 결국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이었다는 아픈 자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⑥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의 삶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질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아프게 자각하고 있다.
- ⑦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부정적 자기 인식(고단하고 방향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⑧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에는 화자가 경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_ 이용악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는 설달 그믐
 밤이 /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찢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 깨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졸음졸음 귀박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아롱범: 표범. *우라지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마우재 말: 러시아 말.
 *귀성스럽다: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시는 시베리아의 이국땅을 떠돌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하에 해체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노래하고 있다. ‘우라지오’는 화자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말로만 듣던 이국의 도시이다. 당시 그곳은 절박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탈출구의 하나였다. 그곳에도 추위와 외로움이 있지만 화자는 그러한 현실과 당당히 맞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도 화자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의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지만 바다가 두껍게 얼어붙어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는 현실을 드러내며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 1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를 찾은 ‘나’
- 2연: 고달픈 현실에 의연히 대처하며 후회 없이 살아온 삶
- 3연: 우라지오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어린 시절의 밤
- 4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움
- 5, 6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 주제 :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① 동일한 시구인 ‘때꺼정’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 ②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에서 음성 상징어 ‘깜박’을 통해 대상(‘등불’)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활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멧비둘기’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상반된 존재이자 화자에게 소망을 환기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 ④ ‘등대’는 한곳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드는 ‘밤’은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⑥ ‘부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표출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⑦ ‘하얀 눈’은 화자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⑧ ‘날고 싶어’는 멧비둘기처럼 화자도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을 담고 있는 구절이므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⑨ ‘눈보라에 얼어붙는 설달 그믐’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고향에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화자가 현재의 삶에서 겪는 힘겨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⑩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는 화자가 떠올린 유년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⑪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는 것은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터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띄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귀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흑백 사진 - 7월」 _ 정일근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쉽 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차르르 내 겨드랑에도 간지러운 새 잎이 돋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뻗뻗뻗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 마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뿜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 정일근, 「흑백 사진 - 7월」

*오수: 낮에 자는 잠.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경험한 일을 다양한 감각적 심상과 비유적 표현으로 그려 내고 있다. 유년 시절 화자의 눈에 비친 여름날의 냇가 풍경, 그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천진난만한, 자연물(미루나무)에 동화되는 화자의 상태, 아이의 혼잣말, 오수에 빠져드는 과정 등이 어우러지면서 평화로운 유년의 기억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 내 유년의 ~ 흘러갔다.
: 물놀이를 하던 시냇가의 풍경
- 냇물아 ~ 미루나무 한 그루
.: '나'의 눈에 비친 미루나무의 모습
- 달아나지 마 ~ 잠이 들었다
.: 물놀이에 지쳐 오수에 빠져드는 '나'의 모습

✓ 주제 :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 ① '7월'과 '더위'를 통해 여름의 계절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 '깜빡'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화자가 잠이 드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에서 활유법을 활용하여 화자와 자연의 일체감('7월'=화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냇가'는 화자가 보냈던 유년의 평화로움(물놀이, 낮잠 자는 모습 등)을 보여 주는 과거의 공간이다.
- ⑤ 화자가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유년 시절 자신의 눈동자 속으로 내려와 눈동자가 터져 나갈 듯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자연에 대해 화자가 가진 친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성탄제」 _ 오장환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속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산속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을 통해 일제의 위력에 희생당하는 당대 우리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어두운 숲’과 ‘골짜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몰이꾼’, ‘포수’, ‘사냥개’는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 존재로, ‘사슴’은 연약한 생명체로 대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비는 생명을 유린하는 세계의 폭력성을 부각한다. 한편 ‘쇠북 소리’는 사냥꾼이 사냥할 때 내는 종소리 또는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쇠북 소리’는 순결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연: 피를 흘리며 쫓기는 사슴
- 2연: 사슴을 쫓는 인간의 집요한 추적
- 3연: 사냥꾼에게 희생되는 동물들을 목격하는 어린 사슴
- 4연: 어미 사슴을 살리고 싶은 어린 사슴
- 5연: 아슬한 곳에서 들리는 쇠북 소리
- 6연: 죽어 가는 어미 사슴이 흘리는 눈물과 피

✓ 주제 : 폭력적 세상에서 순결한 존재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 ① ‘눈(흰색)’과 ‘핏방울(빨간색)’, ‘어두운 골짜’와 ‘하얀 꽃’ 등의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밤 이속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에서 밤새 꺼지지 않는 ‘햇불’은 사슴을 노리는 포수의 추적이 밤새도록 지속될 정도로 집요함을 나타낸다.
- ③ ‘오늘도 몰이꾼이 메고 오는 / 표범과 늑대’에서 ‘표범과 늑대’는 포수가 사냥한 동물로, 포수가 힘센 짐승까지도 사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다.
- ④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에서 ‘샘’과 ‘약초’는 어린 사슴이 죽어 가는 어미 사슴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떠올리는 소재들로, 어미의 소생을 바라는 어린 사슴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⑤ 이 작품은 외부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가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조선 민중을 유린하는 일제의 폭력성을 드러내며, 나아가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조선 민중이 생명의 길을 찾기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⑥ ‘어두운 숲’과 ‘어두운 골짜’는 자연물이 희생당하는 살육의 공간을 나타낸 것이고, ‘포수’는 조선 민중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일제를 상징하는 것이로군.
- ⑦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는 것은,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의 생명이 종식되면서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어미 사슴은 이미 죽음의 세계에 있으므로 어린 사슴만이라도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 즉, 생명의 길을 찾기 바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로군.

「새 1」 _ 박남수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낱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자연물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생명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인간 문명이 지닌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새'는 인위적이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은 순수한 자연을 표상하며, '포수'는 파괴적 속성을 지닌 비정한 인간을 표상한다. 화자는 대조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손에 파괴된 자연을 형상화하는 한편, 순수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 1: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
- 2: 가식 없는 순수성을 지닌 새
- 3: 새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포수

✓ 주제 : 자연의 순수성에 대한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

- ① '새는 울어 ~ 만들지 않고, 지어서 ~ 가식하지 않는다'와 같은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새')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에서 '노래'는 어떤 것을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행하는 순수한 '새'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는 소재이다.
- ③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 다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에서 '체운'은 연약한 존재인 새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순수한 사랑을 상징한다.
- ④ 이 작품은 외부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순수성을 지닌 자연물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자 했다. 특히 자연물이 강하고 포악한 존재에 의해 물리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들이 지닌 순수의 가치는 말살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⑤ '바람의 여울터'와 '나무의 그늘'은 '새'와 같은 순수한 자연물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⑥ '포수'는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로군.
- ⑦ '뜻을 만들지 않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은 자연물의 모습, 즉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지닌 존재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 ⑧ 포수가 쏘는 것이 '순수'가 아니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물이 물리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이 지닌 순수의 가치는 말살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로군.

「장수산 1」 _ 정지용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드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직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윗절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올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長壽山)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벌목정정: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벌목(伐木)’ 편에 있는 구절.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쩡 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뜻.

*조찰히: 맑고 그윽하게.

*올연히: 홀로 우뚝하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황해도에 있는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 풍경을 통해 절대 고요와 탈속적 경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시이다. 화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초월한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태도를 뒤따르고 싶어 한다. 고요한 산속 풍경과 달리 심하게 동요하는 내면의 고뇌를 지닌 화자는 차갑고 우뚝하게 서서 겨울을 견디는 장수산처럼 자신도 슬픔이나 꿈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겨울밤을 보내며 시련을 견디어 내려는 의지를 다진다. 동양적 은일(隱逸) 정신에 대한 지향을 통해 일제 강점기 말의 고통을 인내하고자 했던 시인의 마음이 예스러운 말투의 산문적 진술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 담겨 있다.

- 벌목정정이랬거니 ~ 돌아옴 직도 하이
: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고요
- 다람쥐도 ~ 걸음이란다?
: 적막한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
- 윗절 종이 ~ 줍는다?
: 탈속적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
- 시름은 ~ 흔들리우노니
: 시름에 젖은 화자의 내면
- 오오 ~ 한밤내 —
: 장수산에서 겨울을 보내며 시름을 견뎌 내겠다는 의지

✓ 주제 : 장수산의 절대 고요와 탈속적 지향

- ① 현대 일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어미(‘-ㅁ 직도 하이’, ‘희고녀’ 등의 사용을 통해 예스러운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자기 내면의 심한 동요를 인내해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오오’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감정의 고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겨울 한밤내’는 화자가 인내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 ④ 이 작품은 산(山)을 공간적 배경이자 중심 대상으로 삼아 탈속의 경지를 정밀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속세와 단절된 절대 고요의 공간인 장수산에서 일제 강점기 말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려는 동양적 은일(隱逸) 정신을 담은 시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⑤ ‘조찰히 늙은 사나이’로 지칭되는 ‘윗절 종이 승패에 초연한 듯이 여유와 무욕의 태도를 보여 주는 모습은 장수산이 지닌 탈속적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 ⑥ ‘차고 올연히’는 겨울 장수산의 모습에 대한 표현인 동시에, 세속적인 감정이나 열망에 해당하는 ‘슬픔도 꿈도’ 버리고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환기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
- ⑦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직도 하이’라는 시구는 ‘찌르렁’이라는 실제로는 나지 않는 소리를 언급함으로써 장수산 속의 고요를 부각한 것이다.
- ⑧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라는 시구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의 절대 고요를 강조하고 있다.
- ⑨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에서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을 세속과 거리가 먼, 순수성을 간직한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고 있다.

「고고」 _ 김종길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원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新綠)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원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겨울 북한산의 특정한 모습을 통해 고고한 경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시이다.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는 여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산이 전체적으로는 수묵화처럼 차갑게 젖어 있으면서 높은 봉우리 몇 개에만 살짝 눈이 덮여 있는 때가 되어야 회복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또 그 고고함은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해 버릴 만큼 고스란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섬세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한 점, ‘기다려야만 한다’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태도와 의지를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 1연: 겨울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 2, 3연: 눈이 조금 내린 겨울 아침 북한산의 모습에 대한 기다림
- 4~6연: 쉽게 드러나지 않고 지키기도 어려운 고고한 모습의 겨울 북한산에 대한 기다림

✓ 주제 : 고고한 삶의 경지에 대한 지향

- ① 단정적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겨울날 이른 아침’은 화자가 고대하는 대상(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것)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 ④ 이 작품은 산(山)을 공간적 배경이자 중심 대상으로 삼아 탈속의 경지를 정밀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북한산 봉우리들의 모습을 매개로 고고함, 즉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한 경지를 언급함으로써 속된 것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을 보인 시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⑤ ‘그 높이’로 표상되는 고고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는 이전에도 북한산의 모습으로부터 세상일에 아랑곳하지 않는 경지를 환기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 ⑥ 북한산의 고고함이 ‘원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어야 하는 데다가 ‘원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볼 때, 화자가 생각하는 고고함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현하기 어렵다는 속성을 지닌 것 같아.
- ⑦ ‘열은 화장을 하듯’은 직유법이 사용된 시구로, 이는 ‘높은 봉우리’ 몇 개만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북한산의 고상한 경지를 구성하는 요소인 봉우리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⑧ ‘장밋빛 햇살’은 ‘장밋빛’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북한산의 고고함을 훼손할 수도 있는 대상인 ‘햇살’을 형상화하고 있다.

「거문고」 _ 김영랑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물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달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거문고(기린)’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유가 억압당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제 곡조를 잃어버린 기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리떼’, ‘잔나비떼’로 상징되는 일제와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현실에서 숨죽여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을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 1연: 해가 스무 번 바뀌었음에도 울지 못하는 거문고
- 2연: 다시 올 날을 소망하는 거문고
- 3연: 일제 강점하의 부정적 현실
- 4연: 해가 또 바뀌어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거문고

✓ 주제 : **암담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 인식**

- ①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사물(‘기린’)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기린(나/거문고)’과 이를 위협하는 존재인 ‘이리떼’, ‘잔나비떼’의 대조가 드러나고 있다.
- ④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1연의 ‘벽에 기대선 채’는 4연에서 ‘문 아주 굳이 달고 벽에 기대선 채’로 구체화되어 외부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⑥ 1연의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는 4연에서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로 연결되어 화자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⑦ 1연에서 ‘기린’이 ‘울지를 못’하는 것과 4연에서 ‘기린’이 ‘울들 못’하는 것은 화자가 처한 억압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로 하여금 슬픔과 비애의 감정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⑧ 1연의 ‘영영’은 부정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암담함을, 4연의 ‘맘 놓고’는 억압의 강도가 심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⑨ 이 작품은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193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일제 강점 아래에서 민족 해방의 희망을 불러일으킨 삼일 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폭압을 휘두르는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 ⑩ 거문고의 울림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기린(거문고)의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은 우리 민족이 해방되리라는 희망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3·1 운동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⑪ ‘거친 들 이리떼’와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는 모두 기린을 위협하는 존재이므로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굴동리 일박」 _ 곽재구

누군가의 신음 소리가 문풍지에 부딪쳤다.

- 곽재구, 「굴동리 일박」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아흐레 강진장 지나
 장검 같은 도암만 걸어갈 때
 겨울 바람은 차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춥다
 황건 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바다갈대의 두런거림은 끝이 없고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 들린다
 적폐의 땅 풍찬노숙의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 찢기며 걸어왔을까
 스러져 가는 국운, 해소 기침을 쿨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초근목피
 어느덧 굴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얼굴 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그래 한잔 들게나 다산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 바랜 지명수배자 전단 하나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

✓ 주제 방향성 :

정다산(丁茶山) 1762년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님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
 기민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흥흥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

바람은 차고 바람 새에
 툇날 같은 눈발 섞여 치는데
 일박 사천 원 뜨겁게 군불이 지퍼진
 주막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EBS의 시선

화자는 강진 부근을 지나면서 부정적인 지배층에 항거한 의적들의 창검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굴동리라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지명 수배자의 명단이 기록된 메모 내용에서 다산 정약용을 떠올린다. 화자가 위치한 강진은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이기도 한데, 메모에 적은 내용은 주막을 지나쳐 갔던 어떤 사람이 적어 놓은 것으로 다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백성들 편에 섰던 목민관이었지만 오히려 탄압을 받았던 그를 통해 양심적 지식인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1~8행: 강진장, 도암만을 지나면서 떠오르는 의적들의 행적
- 9~13행: 지나간 역사를 상상하며 주막을 향해 걷는 길
- 14~22행: 굴동리 주막에서 떠올리는 다산
- 23~28행: 다산에 관해 적은 어떤 사람의 메모
- 29~36행: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이가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인식

#과거 EBS의 시선 [2011학년도 수능특강]

화자는 강진 인근을 지나고 굴동리에서 1박을 한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이 작품에는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공존한다. 문득 지명 수배자의 전단에 기록된 메모 내용에서 다산 선생을 떠올린다. 화자가 위치한 시적 공간이 다산 선생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이다. 메모 쪽지에 적은 내용은 주막을 지나쳐 갔던 어떤 사람이 적어 놓은 것으로, 다산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백성의 편에 섰던 목민관이었지만 오히려 탄압을 받았던 다산 선생을 통해 양심적 지식인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 시에는 전반적으로 '차고, 뜨겁게, 찢긴, 신음소리' 등 다양한 감각들이 동원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 * 1~8 행: 강진장, 도암만을 지나면서 떠오르는 의적들의 싸움의 현장
- * 9~13 행: 지나간 역사를 상상하며 주막을 향해 걷는 길
- * 14~22 행: 굴동리 주막에서 다산과 함께하는 술자리
- * 23~28 행(메모): 다산에 관해 적은 어떤 사람의 메모
- * 29~36 행: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이가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인식

✓ 주제 : 다산의 삶을 통해 바라본 부정적 현실 인식

- ① 다양한(촉각, 시각, 청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이 작품은 현재 시점의 화자가 역사적 인물들(관군에 맞서 싸웠던 의적들과 강진으로 유배 간 정약용)을 등장시켜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 ③ '황건 두른 의적 천만'은 지배층에 봉기를 일으켰던 과거의 의적들이고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는 의적들이 관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의미한다. 화자는 현재 바다갈대의 소리를 듣고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과거의 의적들이 일으킨 봉기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 짓고 있다.
- ④ 화자는 강진장을 지나 도암만을 걸으며 과거에 유배를 가면서 그 길을 걸었던 역사적 인물인 다산 정약용을 떠올리고 '맨발로 살 찢기며 걸어왔을까'라고 말하며 정약용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고 있다.
- ⑤ '그래 한잔 들게나 다산'은 화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지만, 이는 다산이 겪었을 고통을 떠올린 뒤 한 말이므로, 힘겨운 삶을 살아온 다산을 위로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를 살고 있는 화자가 과거의 역사적 인물인 다산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인물을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⑥ '유연비어 날포로 민심을 흥흥케 한 /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는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다산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 ⑦ '누군가의 신음 소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한 사람의 신음 소리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산이 고문받을 당시 다산이 낸 신음 소리이자 양심을 지키며 살다가 지명 수배자가 된 사람들의 신음 소리로 볼 수 있다. 화자는 다산이 낸 신음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다고 표현하여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이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⑧ 이 작품은 모두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탐관오리의 학정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아파했던 실학자 정약용을 떠올리며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⑨ '초근목피'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부릅뜬 눈'은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분노의 눈빛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⑩ '바람은 차고 바람 새에 / 툇날 같은 눈발 섞여 치는'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탄압을 받는 부정적 현실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⑪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산의 모습으로,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_ 백석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扶餘)를 숙신(肅愼)을 발해(渤海)를 여진(女眞)을
요(遼)를 금(金)을
흥안령(興安嶺)을 음산(陰山)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胎盤)으로 돌아
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
*만 혼자 낮 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
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
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 *흥안령을 ~ 송가리를: 중국 북부에 위치한 산맥과 강 등을 일컬음.
- *장풍: 창포. 천남성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뿌리는 약용하고 단오에 창포물을 만들어 머리를 감거나 술을 빚음.
- *오로촌: 오로촌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멧돌: 멧돼지.
- *솔론: 솔론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앞대: 평북 내지 평안도를 벗어난 남쪽 지방. 황해도·강원도에 서부터 제주도까지에 이르는 각지.
- *보래구름: 보랏빛 구름.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회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 한반도에 정착하던 상황을 떠올리며, 그저 안일하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과거 역사를 성찰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북방에서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현실에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우리 민족의 대변자로서, 부끄러웠던 우리의 역사를 회상하며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1연: 북방을 떠난 '나'
- 2연: 떠나는 '나'를 아쉬워하는 북방의 민족들
- 3연: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에 순응하며 사는 '나'
- 4연: 시련을 피해 북방으로 돌아온 '나'
- 5연: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북방의 모습
- 6연: 자량과 힘이 허무하게 사라진 '나'의 모습

✓ 주제 :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현실의 부끄러움

- ① 의인화한 자연물을 통해 북방을 떠나기 싫어하는 화자의 괴로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아득한 옛날'과 '아득한 새 옛날'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난다.
- ③ '배반하고'와 '속이고'는 '나'가 자신만을 위해 이들을 북방에 살던 존재들을 떠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④ '잔치'와 '울던 것'은 북방 사람들이 '나'가 떠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 ⑤ '매끄러운 밥', '단 썰', '냇잠'은 '나'가 새로 정착한 곳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음을 드러낸다.
- ⑥ '돌비가 깨지고 '가마귀'가 '긴 족보를 이루었'다는 것은 '나'가 북방을 떠난 지 매우 오래되었음을 드러낸다.
- ⑦ '한 아득한 새 옛날'은 과거에 떠났던 북방으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 현재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⑧ 이 작품은 특정 공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광활한 영토를 떠나 유랑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비극적 현실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살아왔던 삶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그래서 진취적인 조상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느끼고 있다. 작가는 이런 화자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식민지인으로서의 상실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 ⑨ '먼 개소리에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하고 살면서도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자책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⑩ '이미 해는 높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뉘 없이 떠'돈다는 것은 다시 찾아왔지만 과거의 영화를 찾아볼 수 없는 북방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 ⑪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 찬란한 과거의 영화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며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로군.

「나비와 철조망」 _ 박봉우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距離)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 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旗)여……

-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아방: 우리 쪽.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리고 있다. ‘나비’는 분단의 현실로 고통받으면서도 통일과 평화의 꿈을 버리지 못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철조망’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대립되는 성격의 시어들을 바탕으로 분단의 현실을 비판하고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 1연: 해 질 무렵 지친 날개로 날고 있는 나비
- 2연: 꽃밭을 바라며 날고 있는, 상처 입은 나비
- 3연: 적지를 고통스럽게 날고 있는 나비
- 4연: 벽을 느끼면서도 계속 날고 있는 나비
- 5연: 꽃밭을 그리며 날고 있는 나비

✓ 주제 : 민족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

- ① 이 작품에서는 ‘나비’가 시적 대상이지만, 부분적으로 나비의 시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독자가 나비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 느끼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② 1연에서 나비가 보고 있는 ‘시푸런 강과 또 산’은 나비가 가고자 하는 세상에 도달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 ③ 1연에서 나비가 바라보는 ‘장밋빛 무늬’는 노을을 표현한 것으로, 아직 원하는 공간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④ 3연에서 나비가 더 날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마일’은 나비가 도달해야 할 아방의 철조망까지의 거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
- ⑤ 3연에서 나비가 ‘바람’이 자꾸 분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나비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⑥ 5연에서 나비가 ‘벽’을 어설피다고 여기는 것은 나비가 ‘벽’을 언젠가는 넘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⑦ 이 작품은 특정 공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상처 입은 나비가 아픈 상처를 딛고 결국 철조망을 넘으려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비를 통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분단과 대치의 상황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과 평화를 맞이하겠다는 강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 ⑧ ‘생채기’를 입은 ‘나비 한 마리’가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단과 대치의 상황이 종식된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⑨ ‘모진 바람이’ 불고 ‘벽, 벽……’에 부딪치면서도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로군.

「화체개현」 _ 조지훈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위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꽃망을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아 여기 태고(太古)적 바다의 소리 없는 물보래가 꽃잎을 적신다

방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 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 조지훈, 「화체개현(花體開顯)」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석류꽃 개화의 순간에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짧은 여름밤이 사라지는 순간 섬돌 위에 석류꽃이 터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방안’ 가득히 석류꽃이 물들어 오며 석류꽃 안에 화자 자신이 들어가 앓는다고 하면서 석류꽃이 개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동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새벽 등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와 ‘방안’으로 물들어 오는 상황을 석류꽃의 개화를 빌려 나타낸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1연: 무념무상과 몰아의 경지
- 2연: 섬돌 위에 터지는 석류꽃
- 3연: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석류꽃의 개화
- 4연: 석류꽃의 개화에서 느끼는 감동

✓ 주제 : 생명 탄생 순간의 감동

- ①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짧은 여름밤’)가 활용되고 있다.
- ② ‘석류꽃’과 ‘바다’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다.
- ③ 시구의 반복을 통해 석류꽃 개화에 대한 감동이 강조되고,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석류꽃의 꽃망울이 터지면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것은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⑤ 2~4연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이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의 시선 이동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⑥ ‘방안’은 화자가 석류꽃과 합일되는 충만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⑦ 이 작품은 생명 탄생의 순간을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 그리고 생명 탄생의 순간의 신비와 화자의 감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⑧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앓는다’는 생명 탄생의 신비 속에 화자가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⑨ ‘꽃망을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⑩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의 신비와 감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누에」 _ 최승호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壞疽)* 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최승호, 「누에」

*은수자: 숨어서 도를 닦는 사람.

*회저: '괴저'의 비표준어로, 살점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병을 일컫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기까지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에는 스스로 고치로 들어가 번데기의 시간을 거치며 날개를 얻을 날을 꿈꾼다. 고치의 벽이 풀리고 누에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은 외부의 조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얻고자 하는 누에의 꿈과 고치의 벽을 뚫고자 하는 누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누에들은 ~ 가능했을까.
: 나비가 되려는 누에의 꿈
- 어느 날 ~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 고통을 극복하며 얻은 날개
- 밖에서 ~ 잘 알고 있다.
: 스스로의 힘으로 나비가 된 누에

✓ 주제 : 누에고치의 벽을 뚫고 나비가 되고자 하는 누에의 노력

- ① '흰 동굴'에서 흰색의 이미지와 '밤'에서 흑색의 이미지가 대비되어 있다.
- ② 물음의 형식(설의법)을 통해 누에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부각하고 있다.
- ③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동굴'은 누에가 고통 속에서 존재의 변모를 이루어 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이 작품은 생명 탄생의 순간을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 그리고 생명 탄생의 순간의 신비와 화자의 감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⑥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⑦ '회저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에 '날갯짓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⑧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 타자가 아닌 주체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⑨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는 생명 탄생의 순간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낙화」 _ 이형기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綠陰)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꽃이 지는 자연의 변화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인간사를 중첩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 내고 이르게 되는 성숙에 관해 노래한 시이다. 꽃이 지고 나면 녹음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사랑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이별 또한 영혼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 1연: 때를 아는 이별의 아름다움
- 2연: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순간
- 3연: 결별이 주는 축복
- 4, 5연: 성숙을 위한 희생
- 6연: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
- 7연: 영혼의 성숙

✓ 주제 : 이별을 인내하는 데에서 오는 성숙

- ①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 ②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하롱하롱’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 ③ 1연에서는 ‘~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지금은 가야 할 때’라는 표현에는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⑤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이라는 표현은 성숙이 점진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 ⑥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는 표현은 성숙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낸다.
- ⑦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처럼 낙화라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중첩한 맥락을 고려하면,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라는 시구는 꽃이 지는 모습으로도, 그리고 떠나는 사람의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겠군.
- ⑧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영혼의 성숙 가능성을 환기한 것은, ‘녹음’과 ‘열매’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적 리듬의 차원에서 낙화를 이해하는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과목」 _ 박성룡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뿌리는 박질(薄質)*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낱 비바람들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모든 것이 멸렬(滅裂)*하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과목에 과물(果物)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

—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 시력(視力)을 회복한다.

- 박성룡, 「과목」

*박질: '메마른 성질'이라는 의미로 시인이 새로 만든 말.
*멸렬: 찢기고 흩어져 완전히 형태를 잃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소멸과 조락의 계절인 가을에 과목을 보며 얻은 깨달음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는 평범한 모습을 일종의 '사태'로 표현하고, 그것을 본 자신이 '경악'한다고 함으로써 자연의 변화에 대한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섭리에 대해 자신이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게 된 상황을 '시력을 회복한다'는 표현으로 부각하고 있다.

- 1연: 과물을 매단 과목으로부터 느끼는 경이로움
- 2연: 과목이 겪은 시련
- 3연: 가을에 과목이 누리는 은총
- 4연: 과물을 매단 과목으로부터 느끼는 경이로움
- 5연: 삶에 대해 얻는 새로운 깨달음

✓ 주제 : 자연의 변화에 깃든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과 깨달음

- ① 2연에 있는 '붉은'이라는 색채어는 박질의 황토가 지닌 속성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가 자신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1연과 4연에서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사태처럼 /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경이로움을 강조하였다.
- ④ '시를 잃'는다는 것, '가을'이 되어 '한 해'가 저문다는 것은 상실과 조락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나는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과목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화자 자신이 삶에 대해 가진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⑥ 이 작품은 자연의 모습에 대한 평범한 관찰 내용을 생경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⑦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사태'로, 그에 대한 화자의 감회를 '경악'으로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느낌의 한자어를 사용하여 평범한 관찰 내용을 생경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대한 새삼스러운 경탄을 부각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⑧ 과목이 '박질'인 토양에 뿌리를 박고 '비바람들'에 가지가 출렁거리는 부정적 조건을 이겨 낸 점을 제시한 것은, 순환적 리듬을 근거로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주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⑨ 과목이 '모든 것이 멸렬하는' 부정적 변화에도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는 점을 언급한 것은, 인간의 내적인 성장과 결실에 대한 기대와 연관 지을 수 있겠군.

「산」 _ 김광섭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었댔다가는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썩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 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었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뒀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김광섭, 「산」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산은 배려심이 깊고, 포용력이 있으며, 너그럽고 신성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산을 경외의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1연: 늘 인간 세상과 함께하는 산의 모습
- 2연: 모든 생명을 배려하는 산의 모습
- 3연: 인간과 함께하려는 산의 모습
- 4연: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 산의 모습
- 5연: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산의 모습
- 6, 7연: 인간적 감정과 속성을 지닌 산의 모습
- 8연: 포용력을 지니고 있는 산의 모습

✓ 주제 : 산을 통해 배우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

- ① 1연은 독백의 방식으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산의 모습을 표현하여 인간과 함께하는 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에서는 산이 인간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봉우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인간 세상의 부정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 사람을 다스린다'에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산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는 것으로, 화자가 산을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무를 기르는 법'은 생명을 기르는 인내심을,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은 욕심과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겸손함을 깨닫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④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에서 화자가 두 계절이 공존하는 산의 모습을 보며 산이 서로 다른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녔음을 예찬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에서 산은 인간을 좋아하는 친근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덕성을 지니고 있어 경외감을 주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 ⑥ 산이 '들썩거리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떠' 가는 것은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자연의 덕성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⑦ 산이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 높은 꼭대기에 신을 띄'우고 산다는 것은 산이 인간의 죽음마저 받아 주는 너그럽고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⑧ 산이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는 것은 경외의 대상인 산이 인간적인 면모(감정과 욕망)도 지니고 있어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로군.

「가을 떡갈나무 숲」 _ 이준관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빼기 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혼례(婚禮),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산(山)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山)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젓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가을을 맞이한 떡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위안을 받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가 관찰한 떡갈나무 숲은 숲의 생명체에게 안식처이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화자는 자신이 포용력 넘치는 숲의 모습에 동화되는 것을 느끼며, 숲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마저 감싸안아 주는 것 같아 위안을 받는다. 이처럼 떡갈나무 숲은 화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이 작품은 ‘눈부신 날개짓 소리’, ‘뿌려 둔 노래’, ‘파릇한 산울림’ 등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1연: 많은 생명체의 안식처가 되는 떡갈나무 숲
- 2, 3연: 가을 떡갈나무 숲의 풍경
- 4연: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나’
- 5연: 배려심과 포용력이 넘치는 떡갈나무 숲
- 6연: 떡갈나무로부터 위로받는 ‘나’

✓ 주제 : 위로와 평안을 주는 가을 떡갈나무 숲

- ① 6연은 화자와 떡갈나무가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를 위로하는 떡갈나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떡갈나무의 포용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에서 겨울을 대비하여 노루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는 것은 떡갈나무 숲이 곧 노루가 살아가기 힘든 공간이 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 젓꼭지처럼 까맣다’에서 하나 남은 열매를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두었다고 짐작하고 있는데, 이는 떡갈나무 숲에 사는 생명체들이 따뜻한 마음을 지녔을 것이라고 화자가 추측한 것이다.
- ④ 이 작품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떡갈나무 숲은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자 자연과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이 사라지고 ‘텃새만 남아’ 노래를 ‘갈무리한다’는 것은 생명력 넘쳤던 여름날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차분해진 가을 떡갈나무 숲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⑥ ‘나를 들이마’서(대상인 ‘하늘’과 주체인 ‘나’가 전도된 표현) 자신이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는 것은 화자가 떡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로군.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_ 신경림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타령도 듣고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엘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 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신경림,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노령노래: 함경도 지방의 민요.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시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과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모습을 대조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장자』의 「추수」 편에 나오는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삶은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관점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1~8행: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
- 9~17행: 속초와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
- 18~20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

✓ 주제 :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깨달음

- ① 연결 어미 ‘-이며’, ‘-니’, ‘-고’의 반복과 종결 어미 ‘-르까’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작고 큰 산들이 구부리고 엎드린다고 한 부분과 바다가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한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의인화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 ‘바짝’이 활용되고 있다.
- ④ ‘설악산 대청봉 → 속초 → 원통’이라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들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⑤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경험과 속초 시장과 원통 뒷골목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바라보거나 너무 가까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를 마지막 18~20행에서 ‘우리’라는 말로 제시하여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고 있다.
- ⑥ ‘설악산 대청봉’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화자로 하여금 세상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 ⑦ ‘중앙시장 바닥’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으로 그들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세속적 공간이다.
- ⑧ ‘뒷골목’은 화자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 ⑨ 『장자(莊子)』의 「추수(秋水)」편 ‘대지관어원근(大知觀於遠近: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는 것이다.)’ 글귀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된 이 작품은 멀리서 세상을 바라볼 때와 가까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의 화자의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성급하게 삶의 이치를 깨달으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역설하고 있다.
- ⑩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고 생각했던 화자가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가까이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본 후 깨달음을 얻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⑪ ‘속초에 내려와’는 타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겨울 감나무의 모습을 주목하여 관찰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⑫ ‘젊은 군인 부부 사랑싸움질 소리’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청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_ 고재종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획획 후리거나, 제 껌냥껌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등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등치를 타고 내려가, 칠흑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종,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시는 겨울 감나무를 관찰하고 깨달은 생명의 이치를 노래하는 작품이다. 1연에서는 겨울 감나무 가지를 보고 서로 다치지 않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자기 분수만큼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2연에서는 한 등치에서 뻗어 나간 여러 형태의 가지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3연에서는 땅속 깊이 닿아서 물을 빨아올려 꼭대기 끝까지 물을 공급하는 등치 밑뿌리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겨울나무가 보여 주는 생명력을 발견한 화자는 4연에서 감동을 느낌과 동시에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1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감나무의 가지
- 2연: 하나의 등치에서 뻗어 나온 감나무의 가지
- 3연: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의 근원이 되는 힘
- 4연: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 주제 : 겨울 감나무를 통한 인간 삶의 성찰

- ① 1연에서 연결 어미 '-이나', '-거나'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들을 보며 휘방 놓는 법이 없이 허공을 끌어안고 있다고 한 부분에서 의인화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바르르', '획획' 등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겨울 감나무'에서 겨울의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겨울 감나무의 흔들리는 가지를 보며 나뭇가지들이 서로를 휘방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으며, 나뭇가지에 얹은 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무의 등치를 타고 나온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를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라고 말하여 인간 보편의 삶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고 있다.
- ⑥ '찰랑한 허공'은 감나무의 가지들이 욕심내지 않고 다른 가지들과 서로 공존하며 공유하는 공간이다.
- ⑦ '칠흑 땅속'은 감나무의 실가지가 자신에게 생명을 기고 있는 존재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을 얻는 공간이다.
- ⑧ 이 작품은 겨울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감나무에 주목하여 중심을 잡으며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통해 생명의 이치에 대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⑨ '조막만한 새의 무게'는 감나무의 실가지가 '어떤 댕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이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 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⑩ 흔들림이 없는 '주춧기둥 같은 등치'는 외부의 상황 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생명을 지탱하는 여유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⑪ '젓은 바람'은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겨울 감나무의 모습을 주목하여 관찰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⑫ '제 껌냥껌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봄비」 _ 이수복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것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에라고 지껄이것다.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빙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것다.

- 이수복, 「봄비」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곧 다가올 아름다운 봄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별한 임에 대한 애잔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풀빛이 서럽다고 말하는데, 4연에서 그 이유가 나타난다. 봄이 오면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터이지만, 그 아지랑이는 ‘임 앞에 타오르는’ 향불의 연기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1연: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올 강 언덕
- 2연: 종달새 지껄일 보리밭길
- 3연: 처녀애들 짝하여 설 고운 꽃밭
- 4연: 아지랑이 타오를 땅

✓ 주제 : 봄비가 내리는 날에 느끼는 애상감

- ①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풀빛’, ‘푸르른 보리밭길’)가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봄비’를 보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면 ‘아지랑이’가 땅에서 피어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지랑이’처럼 타오를 ‘향연’을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시적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종달새’는 화자와 대비되어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자연물이며, 화자가 위치한 공간의 평화로운 정경을 부각하는 자연물로 볼 수도 있다.
- ⑤ ‘비’는 시상을 촉발하는 자연물로, 서러움이나 슬픔의 정서를 유발하는 등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⑥ ‘강나루’는 실존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관념적 공간으로, 전통적으로 이별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에 임과의 사별을 경험한 화자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공간이다.
- ⑦ 이 작품은 봄비 내린 뒤에 더욱 푸르게 짙어 갈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⑧ ‘임 앞에 타오르는 / 향연과 같이’에서 ‘향연’은 부재로 인한 슬픔이 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주므로 부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볼 수 있겠군.

「청산행」 _ 이기철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靑山)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山)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人家)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南方)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野性)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慣習)들
 서(西)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生木)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속세를 떠나 '청산'에 들어온 화자가 점점 청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속세를 떠나온 이후 자신이 버린 세속의 가치에 미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속세에서의 삶의 모습을 반추하며 번잡한 심정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결국 화자는 속세의 고뇌와 갈등을 떨쳐 버리고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1~3행: 속세를 떠나 청산으로 옴.
- 4, 5행: 속세에 대한 미련
- 6~14행: 청산에서 내려다본 속세의 풍경과 지난날에 대한 반추
- 15~18행: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소망

✓ 주제 :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소망

- ① 감각적 이미지('청산', '저녁 연기')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밝히고 있다.
- ② '청산에 와 발을 푸니'는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청산', '인가'와 같이 대조적 속성을 지닌 시어가 사용됨으로써 주제 의식의 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 ④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에는 화자가 자신이 있는 공간에 익숙해지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들'은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주저하게 했던 것들을 의미한다.
- ⑥ '여울물'은 화자가 청산에서 직접 마주하며 경험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⑦ 화자는 '청산', 즉 자연 속에서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⑧ 화자는 세속이 아닌 '청산'에 와 머무르며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산길이 잘 보'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⑨ 화자는 '청산', 즉 자연에 머무르며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⑩ 화자는 속세에 대해 '미련은 없'으며 '청산'에 머무르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인가를 내려다보'는 등 두고 온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⑪ '맨살 비비는 돌들'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투영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 ⑫ 화자가 '청산에 와 발을 푸'는 행위는 경쟁적이고 복잡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⑬ 화자가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하는 것은 화자와 '우리'가 세속과의 단절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찢레」 _ 문정희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찢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찢레꽃으로 피워 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 갔다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 문정희, 「찢레」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찢레에 빚대어 사랑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는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찢레의 가시는 사랑의 아픔을 상징하며, 가시가 있음에도 봄날 흰 꽃을 피우는 찢레는 사랑의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하려는 화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는 구절에는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집약되어 있다.

- 1연: 찢레로 서 있고 싶은 소망
- 2연: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담고 있는 찢레꽃
- 3연: 아팠던 사랑의 추억을 털어 내고 싶은 마음
- 4, 5연: 사랑의 아픔 속에서 살았던 날들
- 6연: 사랑의 아픔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하려는 의지
- 7연: 아픔을 승화시킨 성숙한 사랑의 태도

✓ 주제 : 이별의 아픔을 승화시킨 성숙한 사랑

- ① ‘초록’과 ‘흰 찢레꽃’의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 ② 담담한 어조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서술어 ‘서 있고 싶다’를 반복하여 사랑의 아픔을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찢레’는 과거에 했던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수용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있다.
- ⑤ ‘내겐 우는 날이 많았’고, ‘아픔이 출렁거리 / 늘 말을 잃어 갔다’는 것은 가시에 찢린 것처럼 사랑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 것이다.
- ⑥ ‘슬퍼하지 말고’ 이제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는 것은 아픈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것이다.
- ⑦ ‘먼 여행에서 돌아와 /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에서는 관념을 사물처럼 표현하여 사랑의 아픔으로 인한 방향을 끝내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⑧ ‘오늘은 그 아픔조차 ~ 꽃 속에 매달고’에서는 사랑의 아픔마저 아름답게 여기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낙화, 첫사랑」 _ 김선우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1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옷깃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2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가장 낮게 옆드린 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습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
 강보에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 김선우, 「낙화, 첫사랑」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떨어지는 꽃에 빗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얻게 된 정신적 성숙을 형상화하고 있다. 첫사랑에 실패한 화자는 그러한 상황을 담담히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별의 고통마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떨어지는 ‘나’를 온몸으로 받겠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1연: 이별의 수용과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의지
- 2연: 이별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과 정신적 성숙

✓ 주제 : 첫사랑의 실패를 통한 깨달은 사랑의 본질

- ① 담담한 어조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서술어 ‘않겠습니다’를 반복하여 이별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내 사랑의 몫’이므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이별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④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희생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 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아 / 강보에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는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은 후에 보인 반응으로, ‘아기를 받듯’의 직유법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신부터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_ 김광규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뿔뿔이 되어 떨어졌다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승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향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1979년에 발간한 작가의 첫 시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에 실린 시로, 기성세대가 된 중년의 화자가 18년 전의 순수했던 청년 시절을 회상하고 현재의 소시민적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젊은 시절의 화자와 친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을 품고 노래를 목청껏 불렀지만, 18년이 흐른 후의 그들은 세속적 가치를 좇으며 현실 순응적인 소시민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4·19가 불러일으킨 이상과 열정, 순수함을 의미하는 ‘옛사랑’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 화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 1~19행: 4·19를 겪은 젊은 시절의 순수한 이상과 열정
- 20~37행: 이상과 열정을 잃고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중년의 세속적인 모습
- 38~49행: 변함없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바라보며 느끼는 소시민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 주제 : 젊은 날의 순수와 열정을 잃고 소시민의 삶을 영위하는 4·19 세대의 자기 성찰

- ① 화자는 ‘부끄럽지 않은가’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현재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과거-현재’의 순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차가운 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젊은 시절의 열악하고 가난했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 ④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라는 소재를 통해 젊은 시절의 순수한 열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라는 소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현재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⑥ ‘늪’이라는 공간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⑦ ‘넥타이’는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된 ‘우리’가 착용한 것으로, 이 소재는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직장인이 되면서 과거의 이상이 아닌 현재의 생활에 구속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⑧ 이 작품은 우리 역사의 중요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경제적 안정에 매몰된 소시민의 삶을 재현한다. 특히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신념의 지향과 생활의 순응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성찰적 내면을 그린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과거와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를 대조하면서 과거의 이상과 열정을 잃은 현재의 소시민과 속물화된 사회를 성찰한다.
- ⑨ ‘4·19’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소시민의 문제를 제기한다.
- ⑩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던 과거의 ‘우리’와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는 현재의 ‘우리’가 대조되고 있다.
- ⑪ 이 작품에서 ‘부끄러움’은 ‘우리’가 현재의 소시민적 생활을 반성하며 느끼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설일」 _ 김남조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 은총의 돌출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 한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시이다. 화자는 외로이 서 있는 겨울나무를 보고 있다가 그 나무도 바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어서 화자는 이러한 인식을 확장·심화하여, 어떤 존재도 혼자인 것은 아니며 황송한 마음과 너그러운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 아래 홀로 서 있을 때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준다는 생각과, 삶과 사랑이 은총과 섭리라는 진술에는 경건한 종교적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 1연: 겨울나무와 바람이 함께라는 인식
- 2연: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 3연: 삶과 사랑을 은총과 섭리로 여기는 생각
- 4연: 너그러운 삶에 대한 다짐
- 5연: 새해를 맞는 순수한 마음

✓ 주제 :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영위하려는 다짐

- ① ‘삶은 언제나 / 은총의 돌출계의 어디쯤이다 / 사랑도 매양 /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어떤 존재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이 생명을 살자’와 ‘~ 한세상을 누리자’에서 청유문을 통해 삶에 대한 다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마치 가지에 매달린 빨래인 것처럼 보는 것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 ⑥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에서 ‘하늘’은 뒤에 ‘은총’이나 ‘섭리’ 같은 시어들이 등장하는 맥락을 고려할 때, 절대자, 즉 초월적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⑦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라는 시구는 삶의 고통이나 슬픔도 하늘로 올라가 신의 은총을 얻은 뒤에 깨끗하고 순수한 백설이 되어 내려오는 것에 대한 진술이다.
- ⑧ 화자는 겨울나무를 관찰한 결과 ‘나무도 바람도 / 혼자가 아닌 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를 인간 삶의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에 적용함으로써,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라는 보편적 진술을 구성하게 되었군.
- ⑨ 화자는 삶과 사랑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바를 바탕으로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지금까지보다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살 것과 인생을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살 것을 바람직한 태도의 준거로 삼게 되었군.
- ⑩ 사랑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처 입은 독자가 이 작품을 읽으면 ‘사랑도 매양 /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라는 시구를 통해 자신의 상처 또한 삶의 본질 중 일부라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겠군.
- ⑪ 이 작품을 읽으면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 말없이 삭이고’라는 시구를 통해 지금까지는 살면서 느낀 불평과 불만, 남에 대한 원망 등을 말로 내뱉었지만, 앞으로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관용적인 태도로 살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겠군.

「상한 영혼을 위하여」 _ 고정희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상한 갈대’, ‘부평초 잎’ 등이 그러하듯, 얼핏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삶의 고난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면 그 고통과 설움을 이겨 낼 수 있으며 암담한 현실에서도 연대할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을 상징적인 시어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 1연: 고통을 직시하려는 각오
- 2연: 고통에 맞서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
- 3연: 성숙한 삶의 태도와, 자신이 연대할 존재에 대한 기대

✓ 주제 : 고통을 대면하고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태도

- ① ‘이 세상 어디서나~’, ‘~로 작정하면 ~랴’, ‘영원한 ~이란 없느니라’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상한 영혼이어’, ‘고통이어’처럼 청자를 호명하여 소통의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딘들 못 가랴 / 지는 해가 문제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서는 태도와 관련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충분히 흔들리자 ~ /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흔들리는 상태를 수용하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서자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 고통에게로 가자’와 ‘~ 살 맞대고 가자’에서 청유문을 통해 삶에 대한 다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⑥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는 ‘물 고이면 꽃은 피’는 ‘부평초 잎’에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 ⑦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라는 표현은 시련에 찬 현실을 넘어서는 상태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⑧ 화자는 ‘상한 갈대’가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는 여유로운 모습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뿌리 없이 흔들리는’이라는 시구를 통해 비록 것처럼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부평초라고 할지라도 조건만 충족되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 ⑨ 화자는 ‘밑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을 수 있는 ‘상한 갈대’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인간의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캄캄한 밤’이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에서도 선불리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보편적 진술을 하게 되었군.
- ⑩ 마지막 행의 ‘마주 잡을 손’은 화자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⑪ 악조건 때문에 고난을 겪는 독자가 (나)를 읽으면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랴’라는 시구를 통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의지를 떠올릴 수 있겠군.
- ⑫ 슬픔이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독자가 (나)를 읽으면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라는 시구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게 되는 계기를 경험할 수 있겠군.

「초토의 시·8 - 적군 묘지 앞에서」 _ 구상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三十) 리면 /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적막만이 / 천만군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다.

손에 달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 북(北)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올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 목 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의 시·8 - 적군 묘지 앞에서」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1956년에 발간된 시집 『초토의 시』에 실린 15편의 연작시 중 여덟 번째 시로, 시인이 6·25 전쟁의 휴전 직후에 친구가 지휘하는 포병 부대를 방문했다가 목격한 장면에서 얻은 감동을 시로 창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분단의 현실을 초토로 표현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인간성의 회복으로 치유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시이다. 전사자의 묘지는 전쟁의 참상을 환기하는 곳이다. 화자는 이 장소에서 적개심과 미움이 어린, 적군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적군 전사자의 원한을 자신의 바람에 담고 그들의 녀를 추모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연민과 사랑으로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려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1연: 눈을 감지 못한 적군 묘지의 녀들
- 2연: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는 적군의 묘지
- 3연: 분단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와 너희’
- 4연: 분단된 현실에 대한 답답함
- 5연: 적군의 풀지 못한 원한에 대한 연민과 이해
- 6연: 분단의 아픔과 대비되는 자연의 풍경
- 7연: 추모와 애도를 통한 현실 극복의 의지

✓ 주제 : 적군 묘지 앞에서 느낀 전쟁의 아픔과 치유의 의지

- ① ‘오호’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줄지어 누웠는 녀들’을 향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한다.
- ② ‘너희’라는 이인칭 대명사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화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듯한 어조를 취한다.
- ③ ‘삼십 리’는 화자와 적군이 돌아가고 싶으나 그럴 수 없게 하는 휴전선과의 거리를 가리킨다.
- ④ 은혜와 원한이 결합된 ‘은원(恩怨)’이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무덤에 묻힌 적군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2연에서 상대의 목숨을 빼앗은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와 시신을 추려 수습하는 행위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대상과의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⑥ 6연의 ‘구름’은 아무 장애 없이 북쪽으로 갈 수 있지만 3연의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처지의 대비를 이루어 6연의 ‘나’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부각된다.
- ⑦ 6연의 ‘구름’이 북으로 간다는 점에 주목하면, 3연의 ‘나’의 염원을 대변하고 미래를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 ⑧ 이 작품은 전사한 적군의 마음을 헤아리고 연민하며 그들을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소망을 보인다.
- ⑨ ‘적군 묘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전쟁의 참상을 환기하고 있다.
- ⑩ ‘무인공산의 적막’을 심리적 무게감으로 전환하는 표현을 통해 분단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⑪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는 죽은 적군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그들의 원통함을 이해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⑫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는 적군의 무덤을 경건하게 조성하는 행위로, 무덤의 주인을 전쟁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애도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⑬ ‘어디서 올려오는 포성 몇 발’은 남북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꽃을 위한 서시」 _ 김춘수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꽃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을 탐색한 시이다. 여기에서 ‘꽃’이란 화자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지만 쉽게 그 본질에 가닿을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것은 마지막 행의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라는 이미지로 집약된다. 화자는 ‘꽃’의 내면적 의미의 실상을 파악해 보려고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한밤내’ 치열한 노력을 계속한다. 하지만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에서처럼 이러한 노력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어떤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란 이처럼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하지만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은 존재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역설적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 1연: 존재의 본질 탐색에서 마주하는 한계
- 2연: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과 고통
- 3연: 존재의 본질 탐색을 위한 간절한 염원과 기대
- 4연: 미지의 존재에 대한 설렘

✓ 주제 : 존재의 본질 탐색에 대한 염원

- ① 화자가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된다’, ‘피었다 진다’, ‘운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화자의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무명의 어둠’은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밝히지 못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을 나타낸다.
- ④ 이 작품은 지향하는 대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를 위한 화자의 노력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특히 화자는 실현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지를 보이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화자의 지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⑤ ‘나의 울음’이 ‘돌개바람이 되어’ ‘금이 될 것이’라는 표현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⑥ ‘눈시울에 젖어드는’은 대상에 도달하는 과정의 고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⑦ 화자가 ‘한밤내’ 우는 행위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기울인 화자의 노력이자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 ⑧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는 화자가 그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상이자, 아직까지 그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등산」 _ 오세영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자일*을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라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한다.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가까이 갈 뿐이다.

- 오세영, 「등산」

*자일: 등산용 밧줄.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산을 오르며 느끼고 깨달은 바를,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확장하고 있는 시이다. 화자는 무명을 더듬는 벌레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빛, 즉 진리를 탐구하는 진지한 열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등산을 하며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의 믿음조차 심하게 흔들릴 수 있음을 느낀 화자는 인생이란 쉽 없이 빛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화자는 등산을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과 행복과 불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임을 깨닫고 있다.

- 1연: 흔들리는 삶의 무게
- 2연: 쉽 없이 빛을 찾으려는 노력
- 3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
- 4연: 암벽을 오르는 바람직한 자세
- 5연: 목표를 향해 가까이 가려는 노력

✓ 주제 : 빛(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 ① ‘흔들린다’, ‘더듬는다’, ‘않는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산을 오르는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② ‘무명의 벌레’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빛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 ③ 이 작품은 지향하는 대상에 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이를 위한 화자의 노력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특히 화자는 실현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지를 보이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화자가 자신의 지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정진하는 일관된 태도와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함부로 올라다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는 화자의 행위에는 자신의 지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정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결코 쉬지 않는’은 대상에 도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⑥ 화자가 ‘암벽을 더듬는’ 행위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기울인 화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⑦ ‘가장 철저한 믿음도 / 한때는 흔들린다’는 화자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들길에 서서」 _ 신석정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우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의 화자는 저문 들길에 서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삶에 대한 밝고 건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작품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세계를 대립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시적 자아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곳은 이미 어두워진 공간이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슬픈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속의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 푸른 산과 같이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살고 있다. 두 번째 세계는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이 있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미래에 다가올 것이기에 고달픈 현재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 1, 2연: 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사는 숭고한 삶
- 3, 4연: 지구를 디디고 사는 기쁜 삶
- 5, 6연: 푸른 별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삶

✓ 주제 :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

- ① ‘푸른 산’, ‘흰 구름’, ‘푸른 하늘’, ‘푸른 별’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노래하고 있다.
- ② ‘얼마나 ~ 일이나’와 같은 유사한 시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에는 화자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다.
- ⑤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에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⑥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에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태도를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고 공감하는 독자들이 함께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 ⑦ ‘부절히 움직’이는 ‘둥근 지구’를 젊은 산맥과 같은 두 다리로 밟고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⑧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 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질투와 존경을 느끼는 사람은 이 작품의 화자를 보고,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과 같이 숭고한 일이군.”이라 생각할 수 있다.
- ⑩ 이 작품은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독려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자와 글쓴이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며 꿈과 희망을 간직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⑪ ‘푸른 하늘’과 ‘푸른 별’ 화자가 삶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삶의 희망을 상징하는군.
- ⑫ ‘저문 들길’은 삶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부정적 여건을 의미하는군.
- ⑬ ‘기쁜 일이나’와 ‘바라보자는 독자들이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군.

「등꽃 아래서」 _ 송수권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동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송수권, 「등꽃 아래서」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등나무 아래에서 등꽃을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정서와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넝쿨진 ‘등꽃송이’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인 정서를 느끼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 1연: 등꽃을 보며 삶의 슬픔과 기쁨의 복합적 정서를 느낌.
- 2연: 등꽃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음.
- 3연: 화자가 발견한 ‘등꽃송이’의 아름다움

✓ 주제 : 등꽃을 통해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

- ① ‘등나무’의 줄기, 동치, 꽃송이와 같은 자연물을 바탕으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을 노래하고 있다.
- ②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에는 특정 현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의미 부여가 나타나 있다.
- ④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에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구슬 같은 소리’와 ‘은은한 소리’는 모두 화자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 심리 상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⑥ ‘튼튼한 줄기가 꼬여’는 대상의 강인한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⑦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과거의 상태에서 변화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⑧ 이 작품은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독려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자와 글쓴이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며 꿈과 희망을 간직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⑨ ‘파란 옥빛 구슬’은 모두 화자가 삶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삶의 희망을 상징하는군.
- ⑩ ‘슬픔’은 화자가 등꽃과 등나무 넝쿨을 보며 인식을 전환하기 이전에,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의미하는군.
- ⑪ 화자가 ‘등꽃송이를 보’게 된 경험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게 된 계기이군.
- ⑫ ‘피어나’는 ‘좋은 꽃들’은 꿈과 희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통해 인간의 삶이 고양된 결과를 보여 주는군.